

코로나19의 MENA 경제 및 산업 영향과 시사점

서상현 수석연구원, 리서치센터 (unisa21@posri.re.kr)

목차

1. 코로나19가 MENA 경제 및 산업에 미친 영향
2. MENA 경제 전망과 주요국의 대응 방안
3. 포스트 코로나 시대 MENA 주요 유망산업 분석
4. 시사점

Executive Summary

- **올 2월부터 본격화된 코로나19 확산은 중동·북아프리카(MENA) 지역의 경제 및 산업 환경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
 - 코로나19 팬데믹에 의한 원유수요 급감과 국제유가 급락으로 MENA 경제가 큰 타격을 받고 있음
 - 특히 MENA에서 경제규모가 큰 사우디, 이란, UAE, 이라크 등 원유 수출국가의 피해가 큰 가운데 세계은행(WB)은 '20년 MENA 경제성장률을 $\Delta 4.2\%$ 로 전망
-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건설, 자동차, 관광산업 등이 큰 타격을 받고 있음**
 - 사우디, UAE, 카타르 등에서 대규모 건설 프로젝트의 입찰이 연기되거나 중단되고 있으며, '20년 MENA 건설시장 성장률은 $\Delta 2.8\%$ 로 전망됨(GlobalData)
 - 자동차는 주요 생산국인 이란과 모로코의 봉쇄정책과 주요 수출지역인 EU의 수요 감소로 생산차질을 빚고 있으며, 관광산업 역시 국경봉쇄 및 항공기 운항 중단으로 큰 타격을 받음
- **최근 MENA 지역 주요 국가들은 봉쇄정책을 완화하는 동시에 다양한 경기부양책을 시행하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고 있음**
 - 사우디와 UAE 등은 6월 14일부터 모든 직장인의 출근을 허용하고 대부분의 상업시설 활동도 재개함
 - 또한 경기부양을 위해 사우디 U\$420억, UAE U\$340억, 카타르 U\$230억, 오만 U\$200억 등을 투입하여 민생을 안정시키고 소비 진작을 유도할 예정
- **특히 탈석유화와 산업다변화로 건설, 신재생에너지, 자동차부품, 의료기기 등이 유망 산업으로 부상할 전망**
 - 건설부문에서는 유가 영향이 적은 주택 등 건축 사업이 유망하며, 신재생에너지는 탈석유화와 맞물려 태양광 및 풍력발전이 지속 성장할 전망
 - 유럽사의 부품 체인망(GVC) 강화로 모로코의 자동차부품 시장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며 코로나19 이후 보건의료 정책 강화로 의료기기 등도 각광받을 전망
- **국내기업도 환경변화에 대한 모니터링 등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야 함**
 - 건설사는 사우디 및 UAE, 카타르 등 주요 건설시장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탈석유화 산업의 수혜인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IPP사업에 적극 진출할 필요
 - 이 밖에 자동차부품 산업 진출과 K-방역으로 국산품 선호도가 높은 의료기기 등의 수출 등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음

1. 코로나19가 MENA 경제 및 산업에 미친 영향

□ MENA 지역 코로나19 확진자 수 125만명으로 급속 확산추세(8.5일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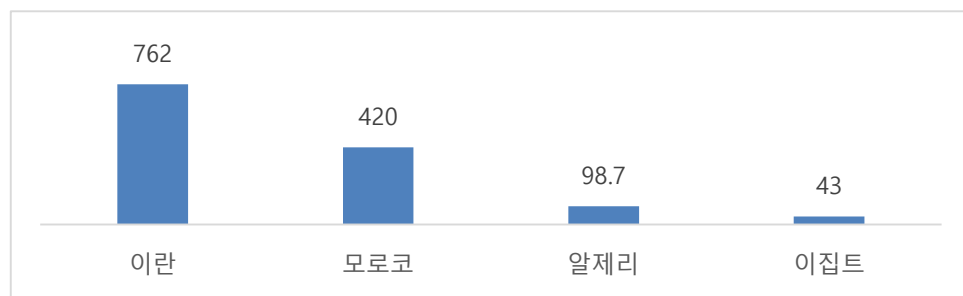
- MENA 지역 중 코로나19 확진자와 사망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국가는 이란으로 확진자가 32만명을 넘었고, 사망자는 1.8만명에 육박
 - 이란 다음으로는 사우디가 초기의 강력한 봉쇄 정책에도 불구하고 최근 확진자 수가 28만명을 넘어섰으며 사망자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
 - 이 밖에 북아프리카에서는 이집트의 확진자 수가 9.5만명을 넘어섰고, 알제리와 모로코 등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

□ 코로나19의 급격한 확산은 MENA 주요 산업들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특히 자동차, 건설, 관광산업 등에 큰 영향 초래

① 자동차산업: MENA의 대표적인 자동차 생산국은 이란과 모로코로 지난해 자동차 생산은 각각 76.2만대와 42만대였음

- 그러나 이란은 미국의 경제제재와 코로나19 영향으로 올해 자동차 생산이 큰 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봉쇄정책 영향으로 6만대 이상 생산 차질 전망
- 모로코도 코로나19 영향으로 3월 중순부터 자동차 가동을 중단, 6월부터 단계적으로 생산을 가동하고 있어 올해 5만대 생산 차질 전망

〈MENA 주요국 자동차 생산 현황('19 기준, 천대)〉



출처: IHS Global Insight, 2020.1Q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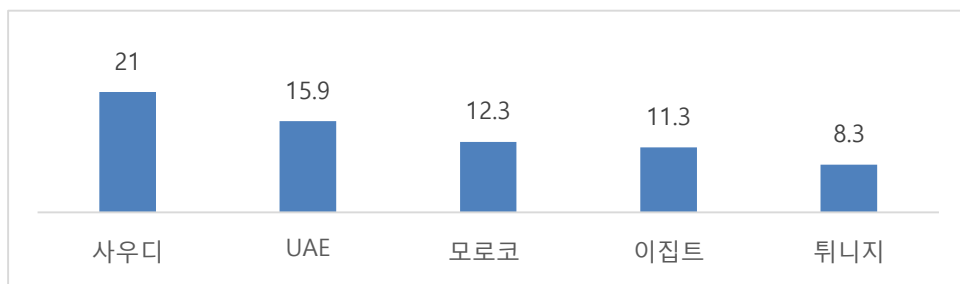
② 건설: 코로나19와 유가하락으로 타격이 불가피하며 사우디와 UAE, 카타르 등에서 대규모 프로젝트의 입찰이 연기되거나 중단되고 있음

- 북아프리카의 이집트와 알제리에서도 코로나19로 인해 주요 프로젝트들이 중단되는 추세로, 이집트 신행정 수도 건설이 코로나19로 지연되고 있고 알제리도 올해 건설 프로젝트 예산을 50% 삭감함

③ 관광산업: 사우디와 UAE, 이집트, 모로코 등은 코로나19로 인한 관광산업 위축으로 국가재정 수입에 큰 타격을 받을 전망

- UAE의 경우 올 10월 개최 예정이었던 '두바이 엑스포 2020'이 1년 연기되었고, 사우디 또한 코로나19로 메카 등 성지순례를 중단하고 있어 관광수입에 큰 타격을 받음
- 이집트는 '19년 U\$129억 수입을 기록하는 등 재정적자의 상당 부분을 충당하던 관광산업이 위축되면서 경상수지 적자 증가 및 외화 수급 차질을 빚을 전망

<MENA 주요국 외국인 방문객 현황('19 기준, 백만 명)>



출처: UNWTO, 2020.8.6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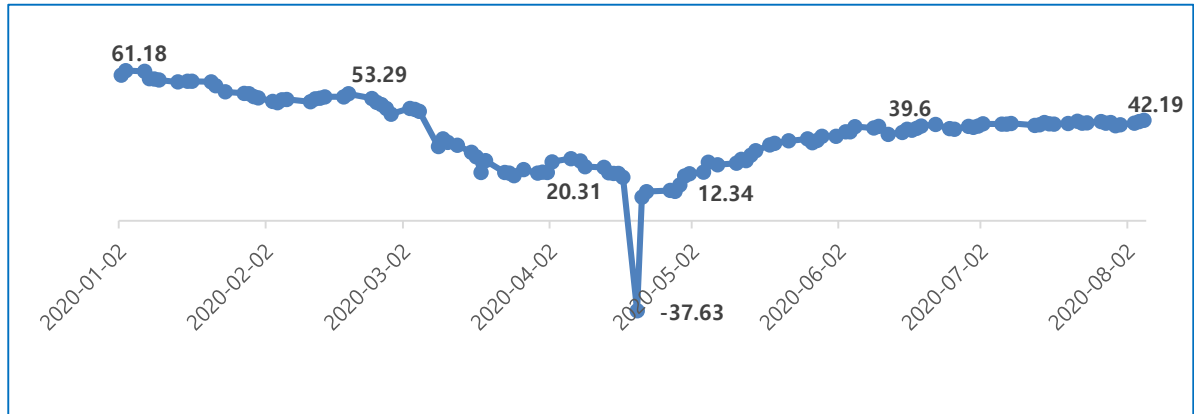
- 이들 산업은 MENA 각국에서 많은 일자리 창출 및 탈석유화를 이끌어갈 주요 산업이라는 측면에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클 전망

2. MENA 경제 전망과 주요국의 대응 방안

□ 코로나19 확산과 유가 급락은 '20년 MENA 경제에 큰 타격을 줄 전망

- 특히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세계 경제침체와 이로 인한 석유수요 감소 그리고 유가 급락으로 원유 수출에 의존하는 산유국들에 큰 충격을 줌
 - 3월 10일 OPEC+의 원유감산 합의 실패로 시작된 사우디와 러시아 등의 유가 전쟁이 코로나19로 인한 수요 급감과 맞물리면서 최악의 저유가 시대 초래
 - 올 초 국제유가는 배럴당 U\$60대였으나 6월 현재 두바이유 현물가격이 U\$30대 선으로 크게 하락하는 등 올해 평균 유가는 배럴당 U\$35에 머물 전망(IMF)

<국제원유가격(WTI 기준, U\$)>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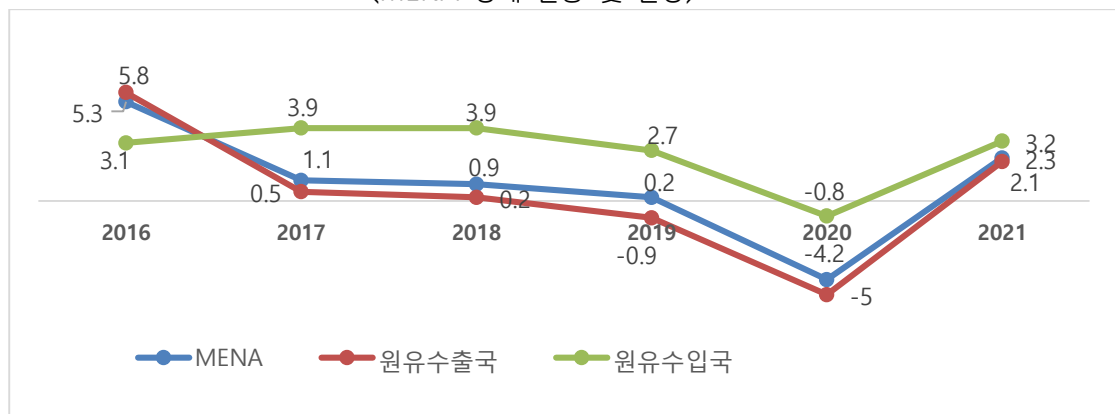
출처 : Bloomberg, 2020.8.6일자

- 이는 글로벌 수요가 하루 2,000만~3,000만 배럴 감소하여 최근 OPEC+가 감산에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공급초과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임

○ 코로나19 확산과 유가 하락으로 MENA의 '20년 경제 전망은 부정적

- 지난 6월 8일 세계은행(World Bank)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년 MENA 지역의 경제성장률은 $\Delta 4.2\%$ 로 전망되는데, 이는 4월 15일 IMF가 발표한 '20년 성장률 전망 $\Delta 3.1\%$ 보다 낮은 수치임
- 주요 원유 수출국인 사우디는 $\Delta 3.8\%$, UAE $\Delta 4.5\%$, 이라크 $\Delta 9.7\%$, 이란은 $\Delta 5.3\%$ 성장이 예상되며 이집트는 3.0% 성장으로 선방할 전망

<MENA 경제 현황 및 전망>



출처: World Bank, 2020.6.8

- 이 밖에 유가 하락으로 산유국들을 중심으로 '20년 재정적자도 심화될 전망
- 사우디는 GDP 대비 재정적자가 $\Delta 12.6\%$, UAE $\Delta 11.1\%$, 쿠웨이트 $\Delta 11.3\%$, 이라크의 경우 $\Delta 22.3\%$ 에 달해 건설 플랜트 발주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전망

□ MENA 주요국들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경기부양책과 경제활동 재개를 위한 단계적인 봉쇄 완화책을 발표

- 코로나19 및 저유가 지속에 의한 경기침체 우려에 사우디, UAE, 카타르, 모로코, 바레인 등은 자국 경기 부양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시행함
 - 많은 국가에서 재정투입을 통한 경기부양책과 자국 중소기업들에 대한 세금 감면 등을 실시함

국가	코로나19 대응 경제 부양 정책
사우디	경제회복 위해 총 U\$420억 사용 계획
UAE	경기부양책으로 U\$340억 지출
카타르	경기부양 및 증시안정화 위해 U\$230억 지출
오만	경기부양 위해 U\$200억 예산 책정
모로코	코로나19 방지 및 해결 위해 U\$10억 지출
바레인	경기부양 위해 U\$114억 확보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봉쇄정책으로 경제활동에 차질을 빚자 사우디, UAE, 이집트, 모로코 등은 단계적으로 경제활동을 재개함
 - 사우디는 6월 14일부터 민간기업들의 전 직원이 직장에 복귀하여 일상적 근무태세로 전환함
 - UAE 역시 6월 14일부터 근로자들의 출근이 허용되었고 도시의 주요 실내 관광시설, 영화관, 스포츠 시설 등의 영업을 재개되고 국제선 운항도 재개
 - 모로코는 코로나19 비상사태를 7월 10일까지 연장했지만, 6월 11일부터 현지시장과 레스토랑 및 카페의 영업재개를 허용하고 스포츠활동 금지도 해제
 - 이집트는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6월부터 호텔 수용 가능 인원의 50%까지 고객 수용을 허용하며 대부분의 경제활동을 재개함

3. 포스트 코로나 시대 MENA 주요 유망산업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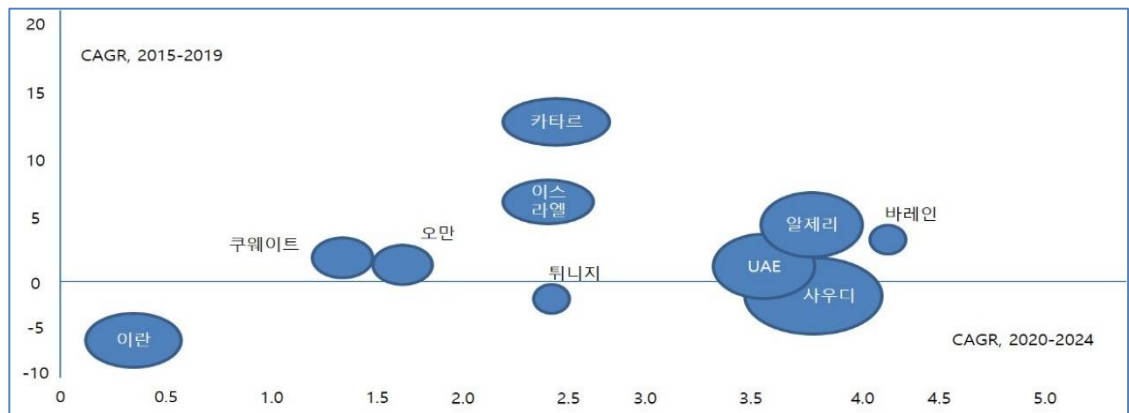
□ 포스트 코로나19 시대에 MENA의 유망 산업으로 건설, 신재생에너지, 자동차 및 부품, 의료산업 등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이들 산업과 관련된 선제적 협력 분야를 선정하여 MENA 지역 진출을 대비할 필요가 있음

① 건설

- MENA 건설시장은 '20.1분기에 한국 건설사 총 해외 수주액의 약 60%인 U\$67억을 수주하며 이미 지난해 전체 실적을 넘었지만, 코로나19와 저유가로 수주 증가세에 부정적 영향 불가피
 - 최근 발표된 GlobalData 보고서에서도 '20년 중동 건설시장이 Δ 2.8%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는데, 이는 '19.4분기 4.6%, '20년 3월 중순 1.4% 성장 전망에서 하향한 수치임
 - 성장전망이 연속해서 하락하는 것은 유가의 낙폭이 예상보다 크고 주요 건설시장에서 이동 제한정책이 실시되면서 건설 인력 공급이 어려워졌기 때문임
 - 이처럼 '20년 중동 건설시장 전망은 다소 부정적이지만, 향후 5년간은 사우디, UAE 등을 중심으로 견조한 성장이 전망됨
 - 특히 사우디의 네옴 신도시 및 리야드 주택사업 등 건축분야 중심으로 프로젝트 재개가 이어질 전망

〈MENA 건설시장 향후 5년 성장률('20~'24)〉



출처: Construction Intelligence Center('20.3.27.). '20~'24 성장률은 가로 축

② 자동차 및 부품시장

- MENA 국가 중 모로코는 현재 60만대 생산규모에서 '25년 100만대 생산 목표로 자동차 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있음
 - 특히 모로코는 부품업체를 적극 유치해 현재 200여개의 부품업체를 '20년까지 250개 업체로 증대할 계획임
 - 부품업체 유치를 위해 탕헤르 자동차 산업 클러스터에 진출한 업체들에 법인세 5년간 면제 등 정부 차원의 각종 혜택을 제공하고 있음

○ 유라 코퍼레이션, 대동시스템, 광진, 핸즈 코퍼레이션 등 다수의 한국 자동차 부품 업체들도 모로코에 진출해 있음

- 모로코 정부는 '25년까지 자국에서 생산하는 자동차의 현지생산 부품 비율을 70%로 의무화할 예정으로 부품사들의 진출이 증가할 전망
- 특히 유럽 자동차사들은 자동차 부품의 글로벌 밸류체인(GVC) 유력 후보지로 모로코를 선정하여 집중 투자할 예정임

〈모로코 주요 자동차 부품사 진출 현황〉

회사명	Saint-Gobain	Kansai Paint	스미토모	핸즈 코퍼레이션
품목	자동차 유리	자동차 페인트	케이블/부품	알루미늄 휠
투자액(€ 백만)	7	20	336	400

출처: 모로코 투자청 등

③ 신재생에너지

○ 중동지역 대표 경제전문지 MEED(Middle East Economic Digest) 자료에 따르면, MENA 지역에서 계획 또는 추진 중인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 규모는 U\$1,000억에 육박하는 것으로 조사됨

- MENA는 풍부한 일조량과 넓은 용지 면적, 지중해 인근의 강한 풍속 등이 갖춰져 태양광 및 풍력발전에 최적화된 지역임
- 특히 중동의 태양광발전소 발전 단가는 지난해 기준 전 세계 평균의 1/5밖에 되지 않았으며, 이는 화석연료는 물론 원자력발전 단가보다 낮은 수준임

○ 사우디는 핵심 에너지 정책 중 하나로 태양광·풍력을 활용한 발전원 다각화를 제시하고 있음

- '19년 사우디 재생에너지개발처는 기존 '23년 9.5GW 재생에너지 확보 목표를 27.3GW까지 확대했으며, '30년까지 57.8GW 확보를 목표로 설정
- UAE는 '19년 3월 무함마드 태양에너지프로젝트*를 위한 U\$42억 금융조달을 마쳤는데, 이는 태양광 에너지 역사상 가장 큰 금액에 해당함 * Mohammed bin Rashid Al Maktoum Solar Park IV(4단계, 950MW)
- MENA 국가 중 모로코의 신재생에너지 전력생산 비중 목표치는 '30년까지 52%, UAE와 이집트는 44%, 레바논·오만·사우디·시리아는 30%임
- MENA가 신재생에너지 발전 확대를 추진하는 가운데 유럽과 일본, 중국기업들이 앞다퉀 이 지역에 진출하고 있음중국기업들은 자국산 Solar PV의 가격 경쟁력을 바탕으로 두바이 5,000MW 태양광 발전소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으며, 일본은 마루베니 등 종합상사들이 자국의 저렴한

정책자금으로 중동지역에서 활발하게 IPP(Independent Power Project) 프로젝트에 참여 중

④ 의료시장

○ MENA는 인구 증가와 기대수명연장에 따라 의료 서비스 수요 증가 및 관련 시장도 성장 중

- MENA 지역은 높은 기온으로 인한 정적인 생활방식, 기름진 식습관, 높은 흡연율 등으로 비만, 당뇨병, 심장질환, 호흡기질환 등의 발병률이 높은 편이며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의료시장 관심도 고조
- 이에 따라 각국 정부는 의료서비스 관련 정책 및 인프라 사업 지원을 확대하는 추세로 의료기기 및 의약품 시장 성장이 예상되며 의료기기 시장은 '18년에서 '23년까지 연평균 8.2% 등 꾸준한 성장이 예상됨

〈의료기기 시장 현황과 전망(U\$백만)〉

	'18	'19	'20	'21	'22	'23
의료기기 판매금액	8,143	8,704.8	9,384	9,969.6	10,747	11,515.3
성장률(%)	9.4	6.9	7.8	6.2	7.8	7.1

출처: BMI, 2020.1Q

- 특히 사우디, UAE 등 GCC 국가들은 산업 다각화를 위해 의료 및 보건 분야를 중점사업으로 선정하는 등 이 분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음
- 최근 한국산 코로나19 진단 검사 장비와 시약 등이 MENA에서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으며 이들 지역으로 수출도 이루어지고 있음

4. 시사점

□ MENA는 최근 산업의 탈석유화 및 제조업 육성 등으로 국내기업의 사업 진출 분야에서도 유망한 시장임

○ 그러나 최근 코로나19 확산과 저유가로 MENA 경제는 원유 수출국을 중심으로 크게 악화될 전망

- 특히 국제유가 급락은 사우디, UAE, 이란, 이라크 등 수출과 재정수입에서 원유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국가들이 타격이 클 전망
- 또한 산업 측면에서는 대규모 재정이 투입되는 플랜트 발주 감소와 철강제품

등의 수요 감소가 이어질 전망

□ 국내기업은 MENA 지역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 향후 부상할 사업을 분석하고 사업 참여기회를 엿보아야 함

- 특히 MENA지역에 관련이 많은 건설사를 중심으로 자동차, ICT, 에너지 등이 기존 사업 확대와 新사업 발굴을 준비해야 함
- ① 자동차 부품: MENA 지역의 대표적 자동차 생산국인 모로코 시장을 대상으로 자동차 부품 판매 확대 및 현지생산 기반을 강화해야 함
 - 모로코는 유럽 자동차사들의 주요 생산 거점국이자 부품의 주요 공급처로 부상함에 따라 자동차 부품시장이 유망함
- ② 의료기기: 코로나 19에 대한 한국의 K-방역의 우수성이 알려지면서 국산 진단키트 및 의료기기의 인기가 높아 수출에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중동은 한국 의료관광의 주요 고객으로 비용지출 또한 중국 의료 관광객들에 비해 4~5배 높아 포스트 코로나 이후를 대비해야 함
- ③ 건설: 저유가 지속에 따른 대규모 건설 플랜트 발주의 취소 및 연기가 예상되지만 서민들을 위한 주택 등 건축시장은 꾸준한 발주 예상
 - 플랜트시장과 달리 건축시장은 현지업체, 인도, 터키 등의 업체와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현지업체와 JV를 통한 진출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④ 신재생에너지: IPP 시장이 지속 확대되고 있는 사우디 및 UAE와 모로코, 이집트 등의 현지 기업들과 공동 진출 모색
 - 현지시장을 선점하고 있는 일본 및 중국기업들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저리 정책금융지원이 필수적임
- 코로나19와 저유가로 MENA의 경제 및 산업환경 변화가 클 전망이지만 유가상승 및 포스트 코로나 19를 대비하여 지속적인 사업 모니터링 및 국내기업들의 공동 참여 사업 발굴을 위한 노력 필요

이 자료에 나타난 내용은 포스코경영연구원의 공식 견해와는 다를 수 있습니다.

[참고자료]

[홈페이지]

KOTRA, "포스트 코로나, 포스트 오일시대를 준비하는 중동의 기회", 2020.5.21.

한국무역협회, "코로나19 이후 유망 수출시장", 2020.5.27.

IMF, "Regional Economic Outlook 2020", 2020.6.

UNWTO, "International Tourist Numbers could fall 60-80% in 2020", 2020.8.6.

[전문 자료]

BMI, "Middle East And North Africa Medical Devices Report", Q1 2020

BMI, "Middle East And North Africa Infrastructure Report", Q1 2020

BMI, "Middle East And North Africa Automobile Report", Q2 2020

GlobalData, "Further cuts to MENA Construction Sector expected for 2020 as Region Hit with Triple Whammy", 05 Jul 2020

IHS Global Insight, "Global Automobile Production Prospect", 1Q 2020

MEED, "MENA Construction Outlook", 2020.4.

JETRO, "中東地域におけるスタートアップ動向調査", 2019.3.

World Bank, "The Global Economic Outlook during the COVID-19 Pandemic", 2020.6.8.